

단체장·지방의원 입·탈당... 2년후 지방선거 대비?

고길호 신안군수 더민주 탈당 김준성 영광군수 복당

송귀근 전 광주행정부시장 국민의당 황주홍 지지

총선 결과 따라 지방선거 입지자들 이합집산 전망

4·13 총선이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이 특정 정당 입·탈당과 특정 후보 지지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들이 본인들 선거도 아닌 총선에서 거취를 드러내 보이는 것은 2년 후 지방선거를 위한 포석용으로 분석된다.

6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고길호 전남 신안군수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고 군수의 더민주 탈당이 박병호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 더민주 서삼석 후보와 국민의당 박준영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14년 고흥군수 선거에 출마했던 송귀근 전 광주시행정부시장은 이날 국민의당 황주홍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송 전 부시장은 현 박병중 군수와 맞붙어 당시 선거에서 패했다.

박병중 군수는 더민주 소속이다. 외견상으로 송 전 부시장이 박 군수와 각을 세

운 셈이다.

앞서 더민주 소속인 명현관 전남도의회 의장이 국민의당에 입당한 것도 2년후 지방선거와 관련 있지 않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해남군수 선거에 관심이 큰 명현관 의장은 박철환 현 군수와 대결이 예상된다. 박 군수는 더민주 소속이다.

무소속이었던 김준성 영광군수는 최근 더민주에 복당했다. 더민주 이계호 후보와 정치적으로 함께하겠다는 의미다.

더민주 소속으로 국민의당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해 눈총을 받은 강진원 강진군수는 최근 더민주를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강 군수의 행보 때문에 지역에서는 강 군수가 국민의당 황주홍 후보를 지

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의회도 더민주 '사수파' 의원들과 더민주 탈당 뒤 국민의당 입당파들로 나뉘어 있다.

현직 국회의원들을 따라 탈당한 시의원도 있지만, 현직 국회의원이 탈당했다더라 더민주에 잔류한 시의원도 있다.

이밖에도 광주·전남지역 지방의원들의 특정 정당 입당과 특정 후보 지지가 2018년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행위로 일한다.

따라서 총선 결과에 따라 이들의 정치적 운명도 어느 정도 정해지고, 단체장과 지방의원,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이합집산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권원기자 cki@kwangju.co.kr

“20~40대 투표율 높고 50~60대는 낮아질 듯”

선관위 투표참여 의향 조사

더민주-국민의당 대책 분주

20대 총선에서 20~40대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높아지는 대신 50~60대 유권자의 투표율은 다소 낮아질 것이라 예상이나 오자 여야는 그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호남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후보들도 유불리를 분석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가 최근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참여 의향 등 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번 20대 총선에서 20대 유권자의 '국회의원 선거 관심도'는 63.3%로, 지난 19대 총선 같은 기간 조사보다 무려 15.1%P가 증가했다.

또 '적극적 투표참여 의향' 조사에서 20대는 19대 총선(36.1%)보다 19.3%P증가한 55.4%를 보였다. 30대는 12.5%P늘어난 59.6%, 40대에서는 6.9%P늘어난 63.2%를 나타냈다. 반면 50, 60대의 '적극적 투표참여 의향'은 각각 2%P, 4.1%P감소한 53.5%와 50.0%였다.

이에 대해 야권은 일단 유리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젊은층의 투표율

이 높아질수록 야당 득표율이 높아진다는 그동안의 공식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정치 상황을 볼 때 그동안의 공식이 맞을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의 견해다.

우선 여야 모두 젊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어낼 만한 아젠다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투표 의지가 곧장 투표율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 '젊은 층=진보'라는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어 젊은층의 투표 참여 확대가 야당에만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로 꼽힌다.

더민주 관계자는 “요즘 20대 젊은이들은 ‘젊은 60대’라고 불릴 정도로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무조건 야당 지지 성향을 바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젊은층의 적극적 투표 참여 의향 확산은 광주·전남지역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그동안 여론조사를 보면 젊은층은 더민주 성향이, 노장년층은 국민의당 성향이 강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야권이 젊은층의 높은 투표참여 의사를 어떻게 투표율로 연결할지, 또 남은 기간 동안 어느 당이 젊은이들에게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는지에 따라 선거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호남주도 정권교체 대장정 시작합시다”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는 6일 광주시청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금부터 호남주도 정권교체의 대장정을 시작합시다. 저 천정배와 국민의당



에게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시고요”라고 간절하게 호소했다.

천 대표는 “새롭게 국민의당이 창당되어 야권의 재편을 주도하고 있다”며 “이번 총선에서 두 가지 시대적 과제인 한국의 패권세력인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하는 한편 야권의 친문 패권을 청산함으로써, 호남주도 정권교체를 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합니다”고 역설했다.

또 “호남의 정당한 이익을 지켜낼 호남주도 정권교체야말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진짜 정권교체”라고 강조했다.

천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낙후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구상도 함께 발표했다. 그는 “지역평등특별법의 제정과 지방교부예산 총량위탁제를 도입하고 지역평등의 뉴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해 인사·국책사업·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광주를 4차산업업을 선점하는 미래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며 세부적으로 광주 혁신형 사이언스 파크 조성, 스마트 에코빌딩 구축 및 보급, 인공지능, 무인자동차 생산기반 구축, 사물인터넷 기반제도 혁신사업 지원, 불인형 콘텐츠 하드웨어 산업육성 등을 제시했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4·13 총선 D-7일인 6일 광주시 서구 운천저수지 앞길에서 국민의당 김한길(오른쪽에서 두번째) 의원이 송기석(서구 갑·오른쪽에서 세번째) 후보 지역구에서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文, 광주가 환영 않는 대권주자... 정권교체 못해”

국민의당 김한길 의원

광주서 광폭 지원 유세

국민의당 김한길 의원이 삼일 선대위원장직을 사퇴한 지 26일 만의 첫 공식행보로 광주를 방문, '기호 3번'을 외치며 총선 후보들을 지원했다.

김 의원은 6일 오전 광주 동남갑(장병원), 북구을(최경환) 선거구를 돌며 유권자들을 만나고 후보 지원유세를 했다.

김 의원은 장병원·최경환 후보와 함께 한 북구 일곡동 유세장에서 “이번 총선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낼 수 있는 야당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

는지를 확인해주는 선거”라며 “야권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기호 3번 후보를 국회로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서정주 시인이 노래한 ‘외할머니네 뒷마루’를 광주에 비유한 김 의원은 더민주와 문재인 전 대표를 직격했다. 그는 “(제가) 더민주에 있을 때 패권정치를 청산하고 정권교체 이룰 수 있는 제1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패권정치를 청산하라고 주장하면 차라리 당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권교체를 시작하려면 야권의 큰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지

금 제1야당의 실질적인 주인, 실력자, 다음번 대통령 후보 되겠다는 사람이 총선 기간에 광주 등 호남에 오지 못하고 있다”며 “광주가 환영하지 않는 야권 대권주자는 있어본 일도, 있을 수도 없고 있어봐야 정권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겨냥했다.

김 의원은 “총선결과로 야권의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확인되면 광주와 호남이 인정하고 환영하는 대권후보를 만들어내 반드시 정권교체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북구갑(김경진)·서구갑(송기석)·광산을(권은희) 등 광주 전역에서 후보들을 지원하는 광폭 지원 유세를 벌였다. 최권원기자 cki@kwangju.co.kr

박빙 광양·곡성·구례 선거구 가장 혼탁

혼탁지수 97점 최고

4·13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전남 광양·곡성·구례 선거구가 가장 혼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구 확정 이후 조사한 제2차 혼탁선거지수에서 광양·곡성·구례가 97점으로 가장 높았다.

혼탁선거지수는 중점 단독대상 선거범죄 등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객관화 할 수 있는 단위지표를 수치화시켜 혼탁정도를 측정하는 지수이며, 지난 1차(1월1일~3월4일) 조사에서는 여수갑이 87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번 2차 지수는 선거구가 확정된 시기인 3월5일부터 4월4일까지 조사했다.

전남 10개 선거구의 평균 혼탁선거지수는 100점 만점에 40.8점(1차 평균 25.8

점)인 가운데, 혼탁지역으로 지정된 광양·곡성·구례가 97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나주·화순 54점, 영암·무안·신안 52점 순이다.

광양·곡성·구례 선거구는 더민주 우윤근 후보와 국민의당 정인회 후보가 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는 곳이다.

관심지역으로는 ▲고흥·보성·장흥·강진 50점 ▲순천 45점 ▲여수갑 38점 ▲여수을 29점 순이며, 평온지역은 ▲담양·함평·영광·장성 27점 ▲해남·완도·진도 9점 ▲목포 7점 순이다.

전남선관위는 이번 측정 결과를 토대로 혼탁선거지수가 높은 선거구를 특별 예방·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위법행위 단속활동을 집중 실시한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4·13 총선과 관련해 고발 8건, 경고 44건, 수사기관 이첩 2건을 조치했다.

최권원기자 cki@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수술 방법

-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치료
- 인공 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안치료
- 각막에 초점밀 미세 인레이를 삽입하여 노안치료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 운영중 병원

신세계백화점

*부작용:수술초기 아간 빛반점, 노안시력 수술시 건조증등이 생길수 있습니다. 의료광고심의필 제 140611-중-59153호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법인회생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병원 등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대표변호사 곽민섭

- 광주지법 해남지원 지원장·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회생 및 파산업무)
- 특허법원 판사
- 법학박사, 경제학석사
- 세무사, 변리사

함께 이루는 밝은 세상
법률사무소 희망미래 062·228·2266